

# 세 가지 근본 체형

스기랴 12:10, 요한복음 19:17-30

최정웅 목사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오늘 마음을 열고 주 앞에 왔습니  
다. 하늘 문을 여시고 성취될 말씀, 응답될 말씀을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잘 각인  
시키고 뿌리내려 우리 체질이 완전히 새롭게 바뀌어, 고후5:17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 새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종에게 말씀을 맡기셨으니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해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만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며칠 전에 이던가에 초청을 받았는데 맛있는 음식을 대접받게 되었다. 3.1절, 굉장  
히 추운 날에 여러분이 나가서 굉장히 수고를 하고 또 잘 했던 모양이다. 처음에는  
기독교인들을 많이 육했는데 여러분을 보고 마음이 바뀐 모양이다. (그래서 행사를 주  
최하신 분들이,) 앞으로도 이런 행사를 하면 우리와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대  
접을 했다.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거기에 맞는  
삶의 열매도 맺히게 되어 있다. 우리는 1만 3천 명이 모였는데도 쓰레기를 남기지  
않도록 램프대회도 치렀다. 광주에서는 센터장이 아예 찾아왔다. ‘어떻게 이렇게 질  
서정연하게 잘 할 수 있느냐, 놀랍다. 이들에게서 희망을 보았다’고 했다. 여러분, 태  
영아부,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대학청년부를 늘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란다.  
이들이 자라서 저 시끄럽게 하는 국회도 점령하고, 대통령도 세워서 민족을 바꾸게 되  
도록 잘 길러야 되겠다. 오늘은 종려주일이면서 고난주일이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제자들과 어린이들과 주민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예수님 가시는  
길에 깔았다. 그리고 호산나 만세를 불렀다. 그래서 이번 주일을 종려주일이라고 한다.  
옛날에는 꽃주일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또 오늘이 고난주일이기도 하다. 오늘부터  
한 주간 동안은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으로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성  
금요일이 들어있는 고난주간이라고도 한다. 이번 주일에, 그동안 목상하던 사사기를  
잠깐 접어두고, 오늘 고난주일과 부활절에는 여기에 맞는 말씀을 목상하려고 한다. 그  
래서 오늘 세 가지 근본 체형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다.

지난주간에는 알파고와 이세돌 9단의 바둑 대국을 우리가 다 봤다. 언제 그렇게 바  
둑을 알았다고, 흥미진진하게 봤다. 전부 급수 단수 다 있는 사람처럼 봤는데, (웃음)  
대단하다. 알파고가 대단하다. 이세돌 9단이 대단하다 하고 말이 많았다. 그 대결은  
사실 맞지 않는 대결이었다. 오락이나 체육은 급수가 원래 서로 맞아야 하고, 1:1로  
해야 하는데, 이것은 1202:1이었으니까. 대용량 서버 컴퓨터가 그 뒤에서 지원을 했지  
않나. 한 점 놓는 것을 1초 내에 결정하고, 그것을 맞게 했는지 검색을 다 해서 가니  
까, 한 사람과 붙는 것이 말이 안 된다. 처음에는 낙담이 이길 것이다 했던 것은 정보  
가 어느 정도 입력되었느냐 싶어서 그랬던 것인데, 해 보니까 엄청난 정보를 집어넣  
어 두었던 것이다. 수십 명과 한 사람이 하는 게 쉽지 않은데, 그래도 이세돌 9단이  
참 대단한 인간의 능력을 발휘해 주었다. 이세돌 9단이 우리 고향 사람이다. (웃음)  
그 섬에 바둑 학교가 있다고 한다. 목포에서 60km 떨어져 있는 섬인데, 거기에서 그  
런 세계적인 사람이 나왔다. 그 말은 우리도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 되겠다. 우리가 이  
시간에 왜 그런 이야기를 먼저 끄집어냈느냐 하면, 오늘 메시지의 중심이 집중력에 있  
기 때문이다. 바둑 뿐 아니라 모든 분야가 마찬가지인데, 얼마나 집중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승리가 결정된다. 중요한 것은, 어디에 제대로 집중하느냐 하는 것이다. 우리  
는 너무 많은 것에 집중을 한다. 정확하게 말하면 집착을 하는 것이다. 스마트폰에 너  
무 집착하니까 중독이 되고, 또 무능자가 된다.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길을 찾  
아주니까 고맙기는 한데, 이제서 그 덕분에 사람들이 바보가 된 것 같다. 요즘은 택시  
기사들도 그게 없으면 길을 못 찾는다. 정치인들이 자리에 너무 집착하니까 국가 안위  
는 온데간데없이 패거리 싸움만 계속하고 있다. 우리는 오늘 집중을 바르게 회복해야  
하겠다. 그러면 어디에 집중해야 되겠는가? 영적인 존재인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한다. 그러면 완전히 승리할 수 있다. 고난주간의 첫째 날 주일에, 갈보리산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집중하는 응답의 한 주간을 살게 되기를 바란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  
지 않고 세상에 집중했던 것을 회개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 바란다. 우리가 어디  
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면서, 집중의 대상을 바꾸는 그런 한 주간이 되어야 되  
겠다. 고난주간을 두고, 또 한 주간 진행될 특별새벽기도회 메시지의 방향과 연결해서,  
우리가 체험해야 할 세 가지 근본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 보도록 하겠다. 갈보  
리산, 감람산, 마가다랴방 체험이 오늘부터 모든 참사랑 가족들에게 시작되기를 축원  
한다.

## 1. 첫 번째 체험할 것은 갈보리산 체험이다.

(1) 갈보리산이 어디인가? 의로우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불의한 우리,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십자가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바로 갈보  
리산이다. 벤전3:18에 보니까,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  
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우리를 대신하셨다’고 말씀했다. 아담의 범죄 이후로 모든 사람은  
죄인이 되었고, 아담에게 내려진 죽음의 선고로 모든 사람이 다 죽어지게 되었다. 그  
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죽게 하셔서,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청  
산하시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충족시켜 완성하셨다. 고전15:3-4에 보니

까,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기록하고 있  
다. 내가 당해야 할 죽음, 우리가 당해야 할 죽음을 대신하시고 대표하셔서 당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바로 갈보리산에서 이루어졌다. 이 사랑을 받아서 누리고 체  
험하는 축복의 구간이 되지는 말이다. 갈보리산의 사랑, 그 은혜, 그 축복을 목상하면  
서 깊은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바란다.

(2)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사역이 무엇이였는가? 이것을 깨닫고 누리는 데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어야 한다. 요18:37에 보니까 예수님은 진리의 왕으로 십자가를 지  
셨다고 스스로 말씀하셨다. 진리의 비밀이 무엇인가? 요8:32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  
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셨다. 마귀의 노예가 되어서 운명, 사주팔자에 사로잡  
혀 있었던 모든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이다. 또 예수님은 제사장의 사역을 담당하셨  
다.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  
해 주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고 행함이니이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죽으  
시고, 죽으시면서까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간구하신 것이다. 예수님은 십자  
가에서 선지자의 사역을 또한 담당하셨다. 한 편 강도를 용서하시고 낙원으로 인도하  
신 것처럼, 우리 모두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 주신 것이다.  
십자가를 지실 때의 말씀만으로도, 우리는 주님이 왕, 제사장, 선지자의 사역을 담당  
하셨음을 알 수 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갈보리산에서 죽으신 이 예수님  
이 우리의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믿는 갈보리산 체험을 우리가 이번 주간에 반드시 하  
면서 새로운 은혜 속으로 들어가자. 그래서 십자가는 한 마디로 모든 문제 해결이다.  
갈보리산 체험은 나의 모든 문제 해결이다. 요19:30에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셨다. “내  
가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다 이루셨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구약에서 약  
속하신 그 언약의 모든 약속을 다 성취하셨다는 것이다. 망해 버리고 죽어버린 인간을  
완전히 다시 살릴 길을 마련하시고 해결하셨다는 것이다. 우리의 의 때문이 아니다.  
우리의 현금 때문도 아니다. 우리가 뭘 잘 했기 때문이 아니다.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  
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게  
되었고,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주님은 그렇게 망해버린 우리를 살리기 위해  
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제물이 되어 죽으셨으며, 우리를 다시 살려 하나님의 자녀  
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게 하시려고 부활하신 것이다.

(3) 누구든지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  
게 되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계획이다. 광야에서 하나님께 반항하고 불  
신양했다가 불뱀에게 물려 죽게 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높이 든 놋뿔을 바라보면  
다 살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갈보리산의 은총을 바라볼 때,  
모든 죄짐은 벗어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놀라운 신분을 회복하는 축복을 받게  
된 것이다. 영화 베풀어 기억하시는가. 갈보리산 십자가를 바라보는 문둥병자들이, 뇌  
성벽력과 폭우 속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그 모든 질병이 깨끗이 나음을 받았다.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 이렇게 승리하게 될 줄 믿는다. 여러분의 질병이 이번  
기간에 치유되기를 바란다. 그렇게 안 오던 응답이 이루어지게 되며, 여러분의 희망과  
비전이 성취되는 구간이 되기를 바란다. 진실로 기도하라. “하나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공효를 부어 주옵소서. 참 전도자, 제자의 삶  
을 살도록 나의 산업을 축복하옵소서. 우리 참사랑교회에도 되어지는 산업인들이 일어  
나고, 응답받은 램프들이 일어나며,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할 수밖에 없는 증인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기도하다가 응답받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란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갈보리산이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는  
끝났다. 이것을 깨닫고 믿고 누리는 갈보리산 체험 속으로 한 주간 동안 완전히 들어  
가게 되기를 축원한다.

## 2. 두 번째 체험할 것은 감람산의 체험이다.

(1) “주여, 감람산의 제자들이 체험했던 그것을 우리에게도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문  
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은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만왕의 왕으로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셨다. 그래서 죄와 사탄과 지옥의 권  
세를 완전히 무너뜨리시고 승리하셨다.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 이후에 무엇을  
하셨는가? 1:3에, 사십일 동안 제자들을 불러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대표  
적인 장소가 감람산이었다는 말이다. 무슨 말인가? 감람산 체험을 해야 한다는 말은,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집중적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해야 한다는 말  
이다.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는 이번 특별새벽기도회가 되기를 바란다.

(2)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다. 그분이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다. 그분이 함께 계시는 나라다. 그분이 함께 계시면 어떻게 되는가?  
주의 천사가 응위한다. 흑암이 무너진다. 그런 체험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내가  
계속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만, 40일 이야기했다는 말만 있고 설  
명이 없다.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 바울은 행19장에서 3개월 동안 말했는데 도  
대체 무슨 말을 했을까. 답답하지 않나? 그런데 말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다 기록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아셔야 한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했다’ 하면 다 알아들으니까  
여기에 일부러 자세히 안 썼다는 것이다. 도대체 그게 뭘까 해서 많은 주석을 읽으면  
서 연구를 해 봤지만 시원하지 않았다. 내가 연구하고 느끼고 믿고 체험한 것은 이것  
이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나라다. 조영택 목사님이 예전에 우리교회에 오셔서 하나  
님 나라에 대해서 훌륭한 설교를 하셨는데, 예수님이 임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다.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행하신 모든 것, 3년 동안 하신 모든 것을 다시 한

번, 재탕하셨다는 것이다. 그동안 하였던 이야기를 반복하셨으니까 여기에 다시 반복 해서 쓰지는 않았던 것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 '천1장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대로 창조되었지만 창3장에서 하나님을 떠나면서 이 모든 축복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창3:15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겠다고 했어. 그 일을 내가 한 거야. 성령으로 이제 너희와 함께 할 것인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지배, 통치, 다스림이야. 그게 하나님의 나라야. 그게 너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해.' 그렇게 쪽 이야기하셨을 것이다. 그러면서 과거 이야기, 지금 이야기, 미래에 일어날 이야기를 다 말씀하셨을 것이다. 마24장, 요한계시록에서 다 이야기하셨으니까, 여기에 또 쓸 필요는 없었던 것이다. 지금까지 했던 말을 다시 기록한 성경은 딱 하나, 신명기다. 아마 예수님은 여기에서 공생애 동안 하였던 말씀, 성경 전체를 통해서 기록되었던 그 말씀을 다시 하셨을 것 같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다. "지금 나를 다스려 주시고 지배해 주시고 통치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사건이 일어나곤 한다.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러시는가 할 때도 있다. 아무리 고민해도 해결이 안 된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한다. 하나님께는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사실을 이길 힘을 주옵소서!" 오직 성령이 임하시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우리 가정을 다스리시고 이 일을 다스리시면 된다. "주여, 고난을 주실 때에는 답도 예비하신 것이 아닙니까. 이 답을 내게 주옵소서. 이길 능력을 주옵소서." 이게 기도다. 이렇게 해서 치유가 되고 은혜가 되고 재무장이 되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그래서 남은 생애를 새롭게 시작하게 되는 축복의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란다.

(3) 감람산의 체험은 또 무엇이었는가?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갈보리산 체험을 통해서 깨달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승리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답이다. 이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마12:28-29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성령이 다스리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저절로 흑암 세력은 도망가게 된다. 이 답을 누리는 한 주간이 되라. 이것 누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러면 전도는 되어지는 것이다. 어제 부산에서 택시를 탔는데, 기사분이 자기 매형이 목사님이라고 했다. "당신은 예수 믿으십니까?" "안 믿습니다." "왜 안 믿습니까?" "믿으려고 해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설명했다. 그분이 왕, 선지자, 제사장이라고 하니까, 이분은 생전 처음 듣는 이야기 아닌가. "당신 지금 30초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해도 됩니까?" (웃음) 뒤에서 김동권 목사님이, "해도 되지 아십니까!" 30초 만에 예수님을 기도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지금 보좌의 권세로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가는 곳에 성령이 임하시고 역사하신다. 그 인도가 있다. 흑암이 결박되고 천사가 동원된다. 응답의 문이 열리게 되어 있다. 우리가 왜 성도인가? 내가 거룩해서가 아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가 된 것이다. 어려운 직장, 학교,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기를 축원한다. 지금부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다가 그 놀라운 감람산의 체험이 있어지기를 축원한다. 하나님은 나머지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마." 더해 주실 것에 관심 가지지 말고 그 나라와 의를 구해 보라. 믿으시기 바란다.

### 3. 마지막 세 번째 체험이 마가다락방 체험이다.

(1) 한 주간 동안, 이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일어나는 참사랑교회가 되기를 바란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깨닫고 그분을 주인으로 영접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천국 백성이 되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 영영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죽을 때까지 하나님 나라의 비밀 속에서 인도하실 것을 약속하셨다. 시48:14에, "이 하나님은 영영하신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해 주시리라." 그래서 이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보장을 받은 인생이 되었다. 여러분, 천국 가고 싶으신가? 그렇다면 지금 가고 싶으신가? 여러분 목소리를 보면 그건 아닌 모양이다. (웃음) 그것도 할머나들이 아니래. (웃음) 그렇게 이 세상이 좋으신가. (웃음) 나는 아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시기 질투가 많고 얼마나 다름이 심한지, 자기가 낡은 아기를 죽인다. 자기들이 살면 더 좋다고 열아홉 명의 아기가 그렇게 실종되어 있다. 친부모에게 그렇게 죽지 않았겠느냐 싶다. 짐승도 그렇게 안 한다. 거미는 자기 어미의 기슴을 파먹고 부활한다. 부모는 그렇게 자식을 사랑한다. 짐승도 그런다. 그런데 어떻게 부모가 아이를 때려죽이고 굶겨 죽일 수 있는가. 세상 살 맛이 안 나지 않나. 어떻게 그렇게 싸울 수 있는가. 정치를 볼 때마다 마음이 답답하다. 대통령이면 우리나라 전체의 대통령이 되어야지, 왜 대구의 대통령이 되냐. 나는 이해를 할 수 없다. 왜 그렇게 웅충하는 말이. 될 때까지는 되어야 하니까 그렇다 해도, 되고 나면 전 국민을 끌어안고 그 이름을 보살피고 가난과 질병을 돌보아야 하는데,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나는 이 세상이 재미없다. 어서 속히 하나님의 나라가 왔으면 좋겠다. 정말 나는 천국을 사모한다. 나는 한 가지 기도를 한다. '하나님, 80이면 죽어요니 그대 나를 불러가 주십시오. 더 이상 세상의 험한 모습을 보지 않도록, 우리 교우들을 천국 우리 집에서 맞이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요즘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유튜브 영상을 보니까, 그래서 산 속에 들어가서 모여 가지고는 밀고 넘어지고 난리더라. 그럴 시간이 있으면 나가서 한 명에게라도 더 복음 전할 것이지. 자기들은 주님이 자기에게 말씀했다고 하는데, 정말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야, 세상이 죽어가는데 한 명에게라도 더 복음 전해라' 그랬을 것 아닌가? 그런 말은 하나도 안 하더라. 지금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다가

그 축복을 누리시기 바란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장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염려할 것이 없다.

(2) 그러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겠는가? 주님은 이 답을 주시고 계신다. 행1:8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는 세계복음화, 땅 끝까지 증인되는 것이다. 삶의 이유, 삶의 목표가 깨달아지는 체험이 우리 모두에게 시작되기를 축원한다. 내가 사는 날 동안 내가 무엇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갈 것인가 하는 것이다.

(3) 이 목표를 우리 힘으로 이룰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방법을 주셨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게 된다." 우리의 삶의 방법은 불신자의 삶의 방법과 완전히 다르다. '내가 옛날에 당했으니까 너희도 한 번 당해 봐라'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 우리는 이제 바뀌어야 한다. '이제 나는 더 이상 내 능력으로 살지 않고 성령충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을 받아 살겠다'고 결단하시기 바란다.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이 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모인 장소가 바로 마가다락방이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그들이 받은 것이다. 그 장소가 바로 마가다락방이다. 이번 한 주간이 이 마가다락방의 축복을 체험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 바란다.

결론을 말씀드리겠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이번 주간이 되어야 되겠다. 두 개의 십자가를 바라보라. 첫 번째 바라보아야 할 십자가는 주님이 지신 십자가다. 모든 내 짐을 그 십자가 아래에 벗어버리도록 결단하고 방향을 맞춰 가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란다. 복음은 완전하다. 충분하다. 모든 것이다. 한 주간동안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라. 두 번째 십자가는 내가 져야 할 응답의 십자가다. 주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오라'고 했다. 이것은 고통, 괴로움, 슬픔이 아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을 행하는' 것이다. '좁은 길을 걸으며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밤낮 기뻐하면서' 길을 가는 것이다. 이 길 끝에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라보고 사모하는 한 주간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에 집중해야 되겠다. 한 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진행된다. 전 교인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자. 왜 산업의 문이 그렇게 안 열리겠는가. 왜 성공하는 사람이 그렇게 없겠는가. 70인 헌당의 주역이 되겠다고 기도하시는데, 지난 10년 동안 헌금하신 분들의 명단을 뽑아 봤더니 1억 원 이상 헌금하신 분이 여섯 명이었다. 70명을 찾아보니까 천만 원이 채 되지 않는다. 이 여섯 명 중에는 교역자가 두 명이 있고, 우리 교인이 아닌 장로님이 있다. 나머지는 세 명 뿐인 셈이다. 생각을 그래서 해 보라. '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다. 나와 후대의 후대의 후대가 누려야 할 교회당을 우리 힘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 천만 원짜리가 300명이 되면 거뜬히 해결된다. 30억 원만 갖고 나면 거의 없어진다. 나는 요즘 희망이 좀 있는 것이, 빛이 우리보다 다들 훨씬 많더라. 60억, 90억, 200억. (웃음) 그래서 희망을 가졌다. 명단을 보면서, '내가 돈에 대해서 말하지 말아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정말 힘을 내시기 바란다. 하나님의 전을 지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뭘까, 10년 동안 한 것이 뭘까 생각해 보자. 창피해지지 않았는가. 정말 심혈을 다해 한 분도 있다. 그분을 생각하면 정말 기도가 저절로 나온다. 내 곁에 있는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정말 기도해 보시기 바란다. '주님만 십자가 지십시오, 나는 안 지렵니다' 하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래도 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총을 생각하면 어떻게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나도 내 곁에 있는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총을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모든 사람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라." 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사모하는 한 주간이 되도록, 우리 모두가 기도에 집중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란다.

세 가지 근본 체험을 하도록, 오늘 결단부터 내리면 좋겠다. 결정을 빠르게 하라. 내 삶의 방향이 오직 예수 십자가가 되도록 결정하고 결단하고 뜻을 정하다가, 큰 응답을 받게 되기를 바란다. 십자가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는 성도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성도다. '내 뭇으로 서 있는 십자가를 내가 지리라'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다. 우리교회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로서, 모든 지역에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 "내 이말씀 이빨이 금이나 되게 해 주세요." 이런 기도는 하지 마라. (웃음)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주시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영상에 그렇게 되어 있더라. 한국교회가 망해 가는 이유가, 이말씀 이빨이 황금 이빨이 되게 해 달라고 하는 기도밖에 안 하니까 그렇다고 여러분, 올바른 기도, 특별기도회 기간에, 전부 마음을 정해서 모이시기 바란다. 우리 모일 장소가 입추의 여지없이 들어차서, 마가다락방에 일어난 역사를 체험해 보도록 기도해 보자. 축복받으시기 바란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되어 주시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 수 있는 은총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도제자의 길을 걷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먼저 세 가지 근본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이 바로 그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마귀에게도 '참사랑교회는 이 정도로 응답받는 교회다' 하고 자랑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모든 교회 앞에서 참사랑교회를 교회의 모델로 자랑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축복을 받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격려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